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05, Vol. 10, No. 2, 189-209

한국 남녀 대학생의 '개인'과 '관계'의 암묵적 표상*

방 희 정† 조 혜 자 조 숙 자 김 현 정

이화여대 심리학과 이화여대 사회과학 연구소

본 연구는 한국 남녀 대학생의 '개인'과 '관계'에 대한 암묵적 표상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RISC(관계적 상호의존성 검사)와 네 가지 IAT(암묵적 연합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관계'는 '활동' 및 '남성적' 특성과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RISC 점수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들의 반응을 비교해 본 결과, RISC 고저, 남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개인-관계'와 '긍정-부정'을 연합시키는 반응에서 RISC가 높은 남성은 '관계'와 '긍정'과의 연합이 빨랐지만, RISC가 높은 여성은 느렸다. '관계나 개인'을 '강하다-약하다'와 연합시키는 반응에서는 RISC가 낮은 남성들은 '개인'과 '강하다'의 연합 반응이 빨랐지만, 다른 집단들은 모두 '관계'와 '강하다'와의 연합반응이 빨랐다. '개인-관계'와 '활동-비활동'의 연합에서는, '관계'와 '활동'과의 연합 반응이 모든 집단에서 빨랐지만 RISC가 낮은 여성들이 가장 빨랐고, '개인-관계'와 '여성적-남성적' 특성과의 연합에서는 RISC가 높은 남성들은 '관계'를 '여성적'인 것과 연합시키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남성적'인 것과 연합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남녀에게 기대되는 관계의 양식이 다름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성 고정관념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주요어 : 개인주의, 집단주의, 관계적 자아, IAT, 암묵적 표상

---

* 본 논문은 2003년도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FRF-2003-074-HS0011).
이 연구를 도와준 이화여대 발달심리 연구팀에게 감사한다.

† 교신저자 : 방희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E-mail : hjbang@hanmail.net

개인은 출생과 동시에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개인이 속한 소속된 문화의 가치나 이상은 개체의 자기관점이나 동기,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화란 한 사회의 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삶의 양식이며, 세계를 해석하고 이해를 주도하는 사회적 의미 체계이기 때문에(Miller, 1984; Markus & Kitayama, 1991), 개인의 표상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인간관계양식, 사회적 행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표현된다. 문화권에 대해서는 다양한 구분이 존재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개념이다. 따라서 지난 20년간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문화권에 따른 차이를 밝히려고 노력해 왔고,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지, 타인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지의 여부가 문화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같은 문화 안에서도 남성과 여성에게 요구되는 삶의 양식은 매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한국 문화 속에 살고 있는 남녀 대학생들이 '개인'과 '관계'에 대해 어떠한 표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시도되었다.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

전통적으로 개인에게 미치는 문화적 영향은 개인주의-집단주의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문화비교 심리학자들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반대되는 개념으로 개념화하면서, 특히 유럽과 북미의 문화와 동 아시아 문화를 비교하는 틀로 사용해 왔다(Oyserman, Coon, & Kemmelmeier, 2002).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가들(Hofstede, 1991; Triandis, 1995; Markus & Kitayama, 1991)은 이 두 개념이 문화적 비교를 위한 분명한 차원이라고 보고, 각각의 구성요인을 밝힐 뿐 아니라, 두 문화권의 구성원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아관, 가치관, 사회적 지각, 정서, 동기 등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런 문화심리학적 입장에 의하면, 두 문화권은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나 인간관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그 구성원들의 행동과 생각, 인간관계에 차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사회구성의 기본단위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으로 보며, 독립적인 개인에게서 사회행위의 원동력을 찾는다. 따라서 그 개인주의 문화권의 개인들은 자율성과 독특성을 추구하는 것을 사회행위의 근본적인 목표로 삼으며, 자신의 독특성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자기주장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개인간의 경쟁과 공정한 교환을 강조한다. 반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존재로 보고, 사회구성의 기본단위를 개인들 간의 관계나 집단으로 보며, 사회행위의 원동력을 관계 속에 내포된 역할과 타인에의 관심 및 배려에서 찾는다. 따라서 집단주의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관계 속의 조화의 추구가 사회 행위의 근본적인 목표라는 입장을 갖게 되고, 사회관계에 갈등을 야기하거나 조화를 해치는 개인적인 소망이나 목표의 추구는 억제하고 양보하며, 협동해 나간다.

두 문화권의 차이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을 Triandis 등(1990)은 요인분석을 통해 4가지 직교적 요인으로 확인하였다. 그들은 집단주의 측면으로 가족 통합성, 상호의존성의 요인을 밝히고, 개인주의 측면으로는 자기-의존성, 내집단에서의 거리 요인을 찾아냈다. 그리고 이러한 두 측면은 성격특성 중 자기중심주의

(idiocentrism)와 타인중심주의(allocentrism)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이 자아에 반영되어 자아해석(self-construal)으로 나타난다고 논의되고 있다. 즉 개인주의 문화에 사는 서양인들은 독립적인 자아해석을 하는데 비해, 집단주의 문화에 있는 동양인들은 상호의존적인 자아해석을 한다는 것이다(Cross & Madson, 1997; Cross et al., 2000; 2002).

이러한 논의는 동아시아 문화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심성이나 자아해석이 서양인들과 다르고, 우리들 고유의 심리현상이 존재할 수 있음을 서양인들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상진(2000)은 우리의 문화는 집단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개인을 타인과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며, 전체 집단과의 조화와 신뢰를 중요시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목표를 개인의 목표보다 중시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서구의 문화가 저맥락 문화(low context culture)라면 동양의 문화는 고맥락 문화(high context culture)라고 불려 왔다(Hall, 1966). 저맥락 문화권에서는 사회적 관계에 관련된 사람들 간의 관계가 개개인이 구축한 개성적, 독립적 자기 유지 원칙을 희생할 정도로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그러나 고맥락 문화권에서는 사회적 관계에 관여된 관계적 맥락이 매우 중요하다. 최상진(2002)은 서구의 개인은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독특한 완성체로 구성되고 있지만, 한국 문화권에서 개인은 그 자체로 완전성을 갖는 개별자이기 보다는 우리(we)라는 사회적 관계단위 속에서의 부분자로서의 성격이 짙다고 본다. 한국인은 독립된 개인으로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불완전 부분자라는 인간관을 갖는다는 것이다.

한국의 남성과 여성

Cross등(1997; 2002)은 동양사회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자아해석이 상호의존적인 반면, 서양과 같은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아해석이 독립적이지만, 개인주의 문화 내에서도 남성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자아해석을 하는 반면, 여성은 상호의존적인 자아해석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들은 집단주의 문화의 독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동시에 자아의 성별차이에 관심을 가졌었지만, 집단주의 문화 내에서 남성과 여성이 어떠한 자아해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단지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도 여성들은 돌봄과 양육을 강조하는 젠더화된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관계적 자아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다. 즉 젠더화된 세계에서는 남성들은 독립적 자아해석이 우세하지만, 여성들은 가족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절하도록 상호의존적이고 관계적인 자아해석이 우세한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해석 양식은 자아표상 뿐 아니라 정보처리, 자존감, 자기고양, 정서, 인간관계 양식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집단주의 문화의 끈끈한 관계 속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서양보다 더 젠더화된 세계에 살고 있는 한국의 여성들의 관계 표상과 남성들의 관계 표상은 어떤 차이가 나는가? 이는 서양의 연구자들이 규명해 줄 수 없는 우리의 문제이다.

한편 Baumeister등(1997)은 Cross 등(1997)의 자아의 성별차이이론을 비판하면서, 개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서구의 남성들 역시 관계를 추구하고 상호의존적이지만, 관계의 영역이 여성들과 다르다고 보면서, 영역차이(different sphere) 이론을 제안하고 있다. 즉 남성들도 여

성과 마찬가지로 소속의 욕구(need for belonging)를 갖지만, 사회에서 수용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어, 여성들이 친밀한 좁은 관계를 추구한다면, 남성들은 폭넓고 확장된 관계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성들이 지위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결국은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들의 이론을 한국의 남성들에게 적용시켜 보자면, 집단주의 문화 속에 살면서 서양의 남성들보다 더 관계중심적이지만, 그 양식은 여성들과 다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너무나 단순한 가설일 수도 있다. 동양사회가 전반적으로 서구화되어가고, 정보화 되어가면서, 문화의 변화와 더불어 각 개인의 가치관과 인간관에 변화가 생기고, 이는 자아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ang(2001)은 최근 중국에서도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평등주의의 가치가 강하게 수용되면서, 중국여성들이 중국남성들보다 개인주의적이고 사적이며, 독립적인 자아해석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국의 상황 역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평생직장의 개념이 와해되고 능력중심의 연봉제가 자리 잡으면서, 점차 개인주의적인 경쟁적 상황이 강해지고 있고, 이러한 것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규석과 신수진(1999)은 848명을 대상으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개인주의자들(51%)과 집단주의자들(49%)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특히 개인주의 경향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의 문화가 전통의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 엿볼 수 있지만, 한국사회에는 여전히 전통적이고 가족중심적인 집단주의 사고가 존재하고 있고, 더불어 성 고정관념도 유지되고 있어, 여성에게 더 관계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주의를 향한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일어나지만, 한편에서는 여전히 유교적이고 집단주의적이며 성 고정관념이 유지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 속에 살고 있는 남성과 여성은 관계 지향적인 정도에 따라 '개인'과 '관계'에 대해 각기 다른 정신적인 표상을 구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집단주의-개인주의의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Oyserman, Coon 및 Kemmelmeier(2002)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인 개념일 수 있으며,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차이로만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동양인들 뿐 아니라 미국인들 중에도 흑인이나 라틴계는 개인주의가 낮으며 집단주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연구들을 개관한 결과 유럽계 미국인들도 미국 흑인이나 라틴계 보다 더 개인주의적인 것은 아니며, 한국인이나 일본인보다 덜 집단주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특히 이들은 연구주제에 따라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유형이 달라짐을 발견했다.

미국인과 일본인의 자아를 비교했을 때에는 두 문화간 차이가 드러났지만, 미국인과 한국인의 귀인양식을 비교했을 때에는 문화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과제에 따라서는 미국 백인들도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집단주의적 특성을 보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과제의 요구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을 통해 '개인'과 '관계'에 대한 표상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암묵적 표상

사회 인지적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식도 일반지식처럼 연합망 체계로 표상을 구성하고 있다고 본다(Smith, 1998). Higgins (1996)는 자기 도식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들을 통합해주는 연합망 체계로 구조화되어 있고, 그때그때 적합한 자기 도식의 일부가 활성화되고, 활성화 확산이 일어난다고 본다. Fazio (1986)는 태도가 연합망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상에 해당하는 마디와 대상의 평가를 대표하는 마디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고정관념 역시 연합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되었다. 이와 같이 사회적인 태도나 자아표상이 연합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동적이고 암묵적인 반응을 측정하는 방법들을 통해 밝혀져 왔다. Gaertner와 McLaughlin(1983)은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점화과제를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그들은 'black'을 점화시켰을 때보다 'white'를 점화시켰을 때, 긍정적인 특성단어에 대해 빠르게 반응함을 발견하였다. 즉 백인과 흑인에 대해 연합된 특성들이 다르며, 이러한 현상은 편견이 낮은 백인들에게서도 나타났다. Devine(1989)은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 집단에 대해 연합된 고정관념을 학습해 왔기 때문에, 편견이 적은 사람들도 암묵적인 점화현상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러한 암묵적인 연구들은 기존의 의식적이고 명시적인 검사들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태도와 행동 간의 관련성을 밝혀주었다. Fazio (1986)는 명시적인 태도측정은 태도의 암묵적 요소와 자동적 활성화 정도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태도와 행동 간의 관련성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Greenwald 등(1995)도 이전에 설명해내지 못했던 많은 심리적 현상들, 특히 역하 메시지나 stroop 효과 등 태도와 관련된 현상들이 암묵적 인지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암묵적 태도는 내성을 통해서는 밝혀지기 어려운 것으로, 초기에는 점화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지만, 최근에는 Greenwald 등(2000; 2002)이 개발한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IAT란 사회적 지식구조도 일반지식구조처럼 개념과 속성들이 연합강도를 가진 연합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이분법적인 사회의 범주와 속성들을 빠른 속도로 분류하도록 하여, 어떤 식으로 연합을 이루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방법이다. Greenwald 등(2002)은 과거에 자신들이 사용하던 점화기법 대신에 IAT를 통해 자존감, 고정관념 등을 측정하고 있다.

개인주의나 집단주의 역시 사회적인 태도로서 개인의 표상에 어떤 식으로든 자리 잡고, 자신의 행동과 태도, 자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Cross 등(2002)은 관계적 자기해석을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관계와 개인에 대한 암묵적인 태도를 IAT를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이들은 관계(together, us), 개인(self, one)과 관련된 범주의 단어들을 불쾌, 유쾌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과 연합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을 컴퓨터 반응으로 측정한 결과, 관계적 자기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개인과 관련된 용어보다는 관계와 관련된 용어를 유쾌한 개념들과 더 빨리 연합시킴을 발견하였다. Cross 등(2002)의 연구는 '관계'나 '개인'과 관련된 개인의 표상을 IAT를 통해 더 탐색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관계'나 '개인'의 범주에 대한 쾌/불쾌의 정서 연합만을 알아보았을 뿐, '관계'와 '개인'과 연합된 다른 표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관

계', '개인'의 표상내용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다른 개념들과의 연합의 정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관계', '개인'의 연합망

'관계', '개인'은 어떤 차원의 범주들과 연합되어 있을 것인가? Osgood, May & Miron(1975)은 인간의 주관적인 반응에 범문화적인 세 가지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범문화적 비교연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들은 100개의 단어 리스트를 제공하고 각 단어에 대해 제일 먼저 생각나는 특성 형용사를 적도록 한 결과, 세 차원, 즉 평가(E)(좋다/나쁘다), 힘이나 파워(P)(강하다/약하다), 활동(A)(빠르다/느리다)이라는 EPA 차원으로 묶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기에서 평가란 사물이나 활동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라는 판단적인 것이고, 힘은 사회적인 권력이나 중요성 등과 관련된 실제적인 영향력을 의미하여, 활동은 행동 경향성으로, 속도, 민첩성, 민감성 등을 의미한다. 이들의 의미차이(semantic differential) 기준은 이후 사회적 행동이나 사회정체성의 문화적 유사성과 차이를 이해하는데 이용되어 왔다(최샛별 등, 2003; Mackinnon, 1994).

Osgood, Suci & Tannenbaum(1957)은 일찍이 평가차원은 다른 요인들보다 가장 일차적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은 이후의 연구들에서도 계속 지지되어 왔다. 예를 들어 Bargh 등(1996; 1997)은 역하 수준에서 제시된 자극에 대해서도 평가적인 의미가 처리되어, '좋다/나쁘다'라는 분류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특히 자극 대상에 대한 평가적인 태도는 개인이 놓여있는 문화나 환경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보상적인 경험을 제공했는지, 아니면 고통스럽고 처벌적인 경험을 제공했는지와 연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Katz, 1960). '관계'와 '개인'의 개념 역시 자신이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에 따라 평가적인 반응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행동들보다는 관계중심적인 행동이 긍정적으로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집단주의 문화가 개인주의 문화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현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관계와 개인이라는 개념은 둘 다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경험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힘이나 파워차원 역시 중요한 차원이다. 파워는 자신의 의지대로 어떤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파워의 욕구를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파워는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power over)과 관련하여 생각되어 왔고, 이런 유형의 파워도 관계와 관련이 된다. Baumeister 등(1997)은 남성들이 권력과 지위를 추구하는 이유는 관계 추구에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동체적이고 여성주의적인 의미에서 돌보는 힘(power for), 나누어갖는 힘, 또는 힘 기르기(empowerment)가 강조되고 있다(조혜자, 2002). 그렇다면 관계적인 여성들과 남성들이 관계를 파워와 연합시킬 때의 의미는 다를 가능성이 있고, 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활동(activity)은 개인이 통합체로서 행하는 행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전체 자아를 반영하는 것이다(Baumeister, 1998). 즉 활동적이라는 의미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따라서 개인이 어떤 상황에서 활동적이고 역

동적인지를 아는 것은 그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해 줄 수 있게 해준다. Bandura(1996)는 인간은 상황에 맞추어 자기를 조절하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유능한지에 대한 자기-효율성(self-efficacy) 신념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즉 어떤 맥락에서 유능한지에 대한 자기표상이 자기 조절적인 행동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관계맥락과 개인적인 맥락에서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고 조절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관계'와 '개인'의 표상이 활동차원과 어떻게 연합을 이루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차원 이외에 중요한 차원으로 성별(여성적-남성적) 차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남녀 특성과 관련된 성 고정관념은 남성은 도구적이고 행위주도성(agency)을 가진다고 보고, 여성은 표현적이며 친교성(communion)을 가진다고 보았다(Bakan, 1966; Kaplan & Sedney, 1989). 즉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특성은 남성적인 것이고, 관계중심적인 특성은 여성적인 것이라는 성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생각은 정신분석학자들과 Gilligan(1983), Cross등(2000; 2002)에 의해서도 주장되어 왔다. 그렇다면, 한국 대학생들에게서도 '개인'은 남성적인 차원과 연합되고, '관계'는 여성적인 차원과 연합되어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관계'와 '개인'이라는 개념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문화적인 영향을 강하게 내포하는 동시에 성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관계'와 '개인'에 대한 표상이 Osgood등의 의미차이의 EPA 세 차원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와 더불어 성 고정관념의 내용인 여성적, 남성적 차원과는 어떻게 연합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면, 앞으로의 범문화적 비교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집단주의 문화에 속하지만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화하면서 개인주의 문화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의 남성과 여성들이 '개인'과 '관계'에 대해 어떤 표상을 암묵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밝혀줄 필요가 있다. 특히 신세대 대학생들은 새로운 문화를 쉽게 접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이 '개인'과 '관계'에 대해 어떤 표상을 구성하고 있는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sgood이 제시하는 세 가지 차원과 여성적-남성적 차원 중 어떤 차원의 내용이 개인과 연합되고, 어떤 내용이 관계와 연합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집합주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한국의 남녀 대학생들이 개인과 관계에 대해 어떤 암묵적인 표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려 시도되었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남녀 대학생들의 '개인'과 '관계'의 표상은 평가차원(긍정/부정)에서 무엇과 연합되어 있는가? 이러한 표상은 관계적인 자아해석 양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남녀 대학생들의 '개인'과 '관계'의 표상은 파워차원(강하다/약하다)에서 무엇과 연합되어 있는가? 이러한 표상은 관계적인 자아해석 양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남녀 대학생들의 '개인'과 '관계'의 표상은 활동성차원(활동/비활동)에서 무엇과 연합되어 있는가? 이러한 표상은 관계적인 자아해석 양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4. 남녀 대학생들의 '개인'과 '관계'의 표상

은 성별차원(남성적/여성적)에서 무엇과 연합되어 있는가? 이러한 표상은 관계적인 자아해석 양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방 법

기초 조사

남녀 대학생 106명을 대상으로 성격특성 기술 형용사를 평정케 하였다. 형용사는 김영채(1984)의 400개 형용사 중에서 유사한 것을 통합하여 268개가 사용되었다. 각 형용사들은 긍정/부정, 강/약, 활동적/비활동적, 여성적/남성적 차원에서 각각 7점 척도(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상에서 평정되었다.

연구대상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130명(여학생 64명, 남학생 6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재료

명시적인 검사

남녀의 관계적인 자아해석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Cross 등(2000)이 제작한 RISC (Relational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검사 11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부록 참조>.

암묵적 태도검사(IAT)

네 가지 유형의 암묵적 태도검사가 제작되었다. 각 검사를 위해서는 두 가지 유형의 범주명과 각각의 특성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선택되었다. 첫 번째 검사에서는 '관계', '개인'의 범주와 '강하다', '약하다' 범주가 사용되었고, 두 번째 검사에서는 '관계', '개인' 범주와 '활동적', '비활동적' 범주가 사용되었고, 세 번째 검사에서는 '관계', '개인' 범주와 '긍정', '부정' 범주가, 네 번째 검사에서는 '관계', '개인' 범주와 '여성적', '남성적' 범주가 사용되었다. '관계', '개인'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은 Cross등(2002)의 연구를 참고하여 각각 5개씩 만들었으며, 그 외의 각 검사의 범주에 해당하는 특성단어들은 기초조사의 결과를 통해 각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순으로 10개씩 선택되었다.

<모든 검사에서 사용된 개인-관계 범주의 특성 단어>

- 개인 : 혼자, 독립, 개인, 자신, 자기(두 번 반복 사용)
- 관계 : 함께, 우리, 같이, 협동, 여럿(두 번 반복 사용)

<검사 1: 평가차원>

- 긍정: 사려깊은, 아름다운, 주체적인, 창의적인, 책임있는, 끈기있는, 신뢰로운, 정직한, 활발한, 현명한
- 부정: 비굴한, 잔인한, 불공평한, 경멸하는, 비꼬는, 불친절한, 난폭한, 음흉한, 거만한, 헐뜯는

<검사 2: 파워차원>

- 강하다: 강인한, 결단적인, 극기하는, 불굴의, 정력적인, 용기있는, 박력있는, 적극적인, 강경한
- 약하다: 연약한, 의존적인, 수동적인, 무력한, 겁많은, 후회하는, 소극적인, 도피적인, 패배

적인, 복종적인

<검사 3: 활동성차원>
- 활동: 적극적인, 모험적인, 활발한, 씩씩한, 행동적인, 개방적인, 정력적인, 재빠른, 열광적인, 날렵한
- 비활동: 게으른, 우울한, 소극적인, 지루한, 얌전한, 정적인, 소심한, 둔감한, 무력한, 수동적인

<검사 4: 성별차원>
- 여성적: 상냥한, 깔끔한, 아름다운, 세심한, 수줍은, 부드러운, 따뜻한, 얌전한, 순결한, 매력적인
- 남성적: 의리있는, 씩씩한, 야심 찬, 박력있는, 강경한, 지배적인, 정력적인, 강인한, 난폭한, 덤비는

절차

연구 참여자들은 컴퓨터를 통해 먼저 명시적 검사 문항을 한 문항씩 제시받고 6점 척도 상에서 자신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곳에 답한 후, 네 가지 IAT 검사에 반응하였다. IAT 검사는 Greenwald의 방법을 따라 시행되었다. IAT는 5단계로 구성되었다. 각 단계에서 피험자는 컴퓨터 화면 중간에 나타나는 자극이 두 개의 범주('개인'과 '관계', '강하다'와 '약하다')중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를 키보드 상에서 왼쪽의 'A'키와 오른쪽의 '5'키를 가능한 한 빠르게 분류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검사 2에서는 1단계에서 '개인'범주에 속하는 자극은 왼쪽 키를, '관계' 범주에 속하는 것은 오른쪽 키를 눌러 분류하였다. 2단계에서는 제시된 형용사가 '강하다'와 '약하다'에 속하는 것인지를 1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3단계에서는 앞의 두 범주들을 합쳐서 '개인'이거나 '강하다'에 속하는 자극들은 왼쪽 키를, '관계'이거나 '약하다'에 속하는 자극들은 오른쪽 키를 눌러 분류케 하였다. 4단계에서는 '강하다'와 '약하다'를 다른 쪽 키를 눌러 분류하도록 하였고, 5단계에서는 '개인'이거나 '약하다'에 속하는 자극은 왼쪽 키를, '관계'이거나 '강하다'에 속하는 자극은 오른쪽 키를 눌러 분류하게 하였다. 따라서 1단계와 2단계, 4단계에서는 각각 20개의 자극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되고, 3단계와 5단계에서는 40개의 자극('개인-관계' 20개와 '강하다-약하다' 20개)에 대해 판단하였다. 이때 오류를 범하면 빨간 X 표가 화면 가운데 나오고 다시 반응을 하도록 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네 가지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은 실험 보조원들의 도움에 따라 진행되었다.

결과처리

명시적 검사 RISC의 cronbach α 는 .72 이었고 남녀 차이는 없었다. 이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남녀 각각 25%(남녀 17명씩)와 낮은 점수를 받은 남녀 각각 25%(17명씩)가 관계적 자아 고저 집단의 비교를 위해 선택되었다.

IAT의 종속 측정치는 각 검사의 3단계와 5단계에서 반응한 반응시간이었다. 각 개인의 반응은 반응시간과 오류율이 측정되었지만, 통계처리에서는 반응시간만 사용하였다. 이는 본 연구를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오류를 범하면 빨간 X표가 나오고 다시 옳은 반응을 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오류가 반응지연으로 반응시간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각 반응 중 3000ms이 넘는

반응과 300ms보다 빠른 반응은 Greenwald 등(2000)의 지침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각 검사별로 3단계와 5단계의 반응시간(2)을 전체 남녀 참여자(2) 별로 이원변량 분석하여 봄으로써, 관계표상을 알아보았다.

관계적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표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4개의 IAT 검사 각각에 대해 남녀(2) RISC 고저 집단(2)의 3단계와 5단계의 반응시간(2)을 삼원변량 분석해 보았고, 3단계와 5단계의 반응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IAT 점수(5단계 반응시간에서 3단계 반응시간을 뺀 값)도 알아보았다.

결과 및 해석

개인-관계와 평가차원의 연합

개인-긍정/관계-부정을 연합하여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개인-부정/관계-긍정과 연합하여 반응하는데 걸리는 남녀의 반응시간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2)에 따라 조건(개인-긍정/관계-부정 연합 vs. 개인-부정/관계-긍정 연합)(2)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변량 분석해 보았을 때, 성별 주효과도 없고($F(1, 128) = .14$, $p > .05$), 조건에 따르는 주효과도 없었으며($F(1, 128) = 1.51$, $p > .05$), 성별과 조건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하지 않았다($F(1, 128) = .58$, $p > .05$),

표 1. 성별에 따른 반응시간 평균과 표준편차(ms)

성 별	개인-긍정/ 관계-부정	개인-부정/ 관계-긍정
남성(n=66)	982.34(171.61)	949.71(184.89)
여성(n=64)	979.43(169.96)	971.83(176.36)
평 균	980.91(163.98)	960.60(180.39)

이러한 결과는 한국 문화 내에 살고 있는 남녀 대학생들이 개인별로 다른 표상을 구성하고 있는데,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아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관계적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를 비교해 보기 위해, RISC 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반응시간을 남녀별로 3원 변량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건 주효과가 나왔으며($F(1, 64) = 4.02$, $p < .05$), 성별과 RISC 상호작용 효과도 타났다($F(1, 64) = 5.56$, $p < .05$). 즉 RISC 고저 집단만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개인을 긍정적인 것과 연합시키는 반응보다는 관계를 긍정적으로 연합시키는 반응이 빨랐고, 이러한 현상이 남자에게서는 RISC 점수와 상관없이 나타났지만, 여성의 경우, RISC 점수가 낮은 여

표 2. 성별과 관계적 자아성향에 따른 반응시간 평균과 표준편차 (ms)

성별	RISC	개인-긍정/관계-부정	개인-부정/관계-긍정
남성(n=34)	저 (n=17)	1026.58 (183.51)	977.51 (215.21)
	고 (n=17)	954.53 (169.96)	893.56 (142.88)
여성(n=34)	저 (n=17)	928.44 (164.47)	878.41 (146.79)
	고 (n=17)	996.74 (139.88)	989.91 (180.20)

표 3. 성별 * RISC 저고에 따른 IAT 점수 평균

성별	RISC	IAT 점수
남성(n=34)	저 (n=17)	-49.12 (135.24)
	고 (n=17)	-60.97 (191.19)
여성(n=34)	저 (n=17)	-50.03 (213.95)
	고 (n=17)	-6.83 (121.45)

성에게서는 이러한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나, RISC 점수가 높은 여성에게서는 분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IAT 점수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은 더 관계적이고, 관계적인 여성들일수록 관계를 더 긍정적인 것과 연합시키고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대비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남성들이나 덜 관계적인 여성들(RISC 저집단)은 '개인'보다는 '관계'가 긍정적인 것과 연합되어 표상을 이루고 있지만, 오히려 관계적인 여성들(RISC 고집단)은 '관계'가 긍정적인 것과 강하게 연합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능한 설명은 무엇일까?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관계적인 여성들은 관계에 대해 더 많은 기대를 하고 따라서 관계에서 실망이나 부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계적인 여성은 관계에서 헌신적일 수 있고, 상대가 자신과 비슷하게 자신을 대하지 않을 때 더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관계에 무심한 사람들은 관계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관계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에서 잃을 것이 적고, 따라서 관계를 긍정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 설명은 관계지향적인 여성들은 관계에 몰두하여 관계 내에서의 다양한 사건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따라서 긍정적인 것 뿐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지식들이 관계 표상에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개인-관계와 파워차원의 연합

검사 2는 개인과 관계 중 어떤 상황이 더 파워나 힘과 관련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개인-강하다, 관계-약하다 의 반응시간과 개인-약하다, 관계-강하다 의 반응시간이 표 4에 나와 있다.

성별(2)과 조건(개인-강하다/관계-약하다 vs. 개인-약하다/관계-강하다)(2)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변량 분석해 보았을 때, 성별 주효과도 없고($F(1, 128)=.46$, $p > .05$), 조건에 따르는 주효과도 없었으며($F(1, 128)=.00$, $p > .05$), 성별과 조건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하지 않았다($F(1, 128)=.21$, $p > .05$),

따라서 검사 1과 마찬가지로 관계적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고(표 5 참조), RISC 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반응시간을 남녀별로 3원 변량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건의 주효과나 성별의 주효과, RISC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별과 RISC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 64)=5.89$, $p<.05$). 즉 남성의 경우 RISC 저 집단은 개인을 강하다와 연

표 4. 성별에 따른 반응시간 평균과 표준편차(ms)

성별	개인-강하다/ 관계-약하다	개인-약하다/ 관계-강하다
남성(n=66)	1054.91(205.02)	1065.44(226.92)
여성(n=64)	1084.59(199.08)	1073.61(202.48)
평균	1069.52(201.89)	1069.46(214.44)

표 5. 성별과 관계적 자아성향에 따른 반응시간 평균과 표준편차 (ms)

성별	RISC	개인-강하다/관계-약하다	개인-약하다/관계-강하다
남자(n=34)	저 (n=17)	1090.35 (216.09)	1130.68 (258.24)
	고 (n=17)	1036.05 (226.25)	1006.63 (229.18)
여자(n=34)	저 (n=17)	1052.71 (182.88)	983.32 (126.50)
	고 (n=17)	1127.87 (208.92)	1122.68 (271.38)

합시키는 반응이 관계를 강하다와 연합시키는 반응보다 빨랐지만, RISC 고 집단에서는 관계를 강하다와 연합시켜 반응하는 시간이 개인을 강하다와 연합시키는 반응보다 빨랐다. 반면 여성들의 경우에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는데, RISC 저집단이 오히려 관계를 강하다와 연합시키는 반응이 빠르고, RISC 고 집단에서는 두 반응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여성의 경향성은 검사 1과 유사하다. 이러한 반응간의 차이를 통합하여 보기 위해 IAT 점수를 내어본 결과가 표 6에 나와 있다.

이 결과는 남성의 경우, 관계적인 남성(RISC 고집단)이 관계를 강하다와 연합시키고, 비관계적인 남성(RISC 저집단)은 개인을 강하다와 연합시키고 있지만, 여성들의 경우, 비관계적인 여성이 오히려 관계를 강하다와 연합시키고, 관계적인 여성들은 관계-강하다의 연합 정도가 개인-강하다의 연합 정도와 유사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파워차원에서 남성들의 관계의 경험과 여성들의 관계의 경험이 다를 수 있고, 특히 자신을 관계적으로 해석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관계적인 남성들에게 관계적이라는 의미는 관계 속에서 더 강하고 주도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관계를 통해 파워를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표상을 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에는 관계적이라고 할 때의 의미가 남성과는 다르다. 즉 관계적인 여성들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성 고정관념적인 관계특성을 수용하여 약하고 의존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경험들에 노출되어 왔음을 암시한다. 한편 여성들이 관계적 자아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성 고정관념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이는 비관계적인 여성들이 오히려 관계에서 강하고 파워를 경험하여 정신표상 속에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6. 성별 * RISC저고에 따른 IAT 점수 평균

성별	RISC	IAT 점수
남성(n=34)	저 (n=17)	40.35 (355.53)
	고 (n=17)	-29.42 (262.01)
여성(n=34)	저 (n=17)	-69.39 (174.82)
	고 (n=17)	-5.19 (354.82)

개인-관계와 활동성 차원의 연합

검사 3은 개인, 관계가 활동성과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개인-활동, 관계-비활동 의 반응시간과 개인-비활동, 관계-활동의 반응시간이 표 7에 나와 있다.

표 7. 성별에 따른 반응시간 평균과 표준편차(ms)

성별	개인-활동/ 관계-비활동	개인-비활동/ 관계-활동
남자(n=65)	1064.82(213.52)	955.64(178.83)
여자(n=64)	1041.85(169.96)	970.15(175.23)
평균	1053.37(192.73)	962.84(176.51)

표 9. 성별 * RISC저고에 따른 IAT 점수 평균

성별	RISC	IAT 점수
남성(n=52)	저 (n=17)	-39.86 (184.42)
	고 (n=17)	-90.24 (169.24)
여성(n=52)	저 (n=17)	-118.55 (166.28)
	고 (n=17)	-94.77 (236.45)

성별(2)과 조건(개인-활동/관계-비활동 vs. 개인-비활동/관계-활동)(2)을 변량 분석해 보았을 때, 조건에 따르는 주효과가 있었지만($F(1, 128)=23.83$, $p<.001$), 성별 주효과는 없었고($F(1, 128)=.006$, $p>.05$), 성별과 조건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하지 않았다($F(1, 128)=1.01$, $p>.05$). 즉 남녀 모두 개인-활동/관계-비활동의 반응보다 개인-비활동/관계-활동의 반응이 유의미하게 빨랐다.

이 검사에서도 관계적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RISC 고저집단을 비교해 보았고(표 8과 9 참조), RISC 고저 집단의 반응시간을 남녀별로 3원 변량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건의 주효과가 매우 유의미하게 나왔고($F(1, 64)=13.713$, $p<.001$). 성별과 RISC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 64)=4.847$, $p<.05$). 즉 RISC 고저수준과 상관없이 남녀 모두 개인-비활동/관계-활동에 대한 반응이 개인-활동/관계-비활동에 대한 반응보다 빨랐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성별과 RISC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여, 남성들의 경우에는 RISC 고 집단이 저 집단보다 관계를 활동적과 연합시켜 반응하는 시간이 빨랐지만, 여성들의 경우에는 RISC 저 집단이 고집단보다 관계를 활동적과 연합시키는 반응이 더 빨랐다.

이와 같이 남녀 모두 관계를 활동과 연합시키는 결과는 우리 문화가 다분히 집단주의 문화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우리 문화에서는 활동이 관계적이고 집단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것은 비활동적인 것과 연합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 검사에서도 관계적인 자아해석의 양상에 따르는 반응에서 남녀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남성의 경우 비관계적인 남성들(RISC 저집단)은 관계적인 남성들(RISC 고집단)보다는 관계와 활동의 연합이 덜 강하게 이루어져 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비관계적인 여성들의 관계와

표 8. 성별과 관계적 자아성향에 따른 반응시간 평균과 표준편차 (ms)

성별	RISC	개인-활동/관계-비활동	개인-비활동/관계-활동
남성(n=34)	저 (n=17)	1060.95 (199.60)	1021.09 (207.03)
	고 (n=17)	1002.55 (157.68)	912.31 (152.67)
여성(n=34)	저 (n=17)	1021.71 (134.87)	903.16 (155.31)
	고 (n=17)	1089.18 (197.87)	994.41 (216.82)

활동의 연합이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의 경우, 관계적 경향성이 낮을수록 관계에서 더 자유롭고 활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개인-관계와 성별 차원의 연합

검사 4는 개인, 관계가 여성적 남성적 특성과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개인-여성적, 관계-남성적의 반응시간과 개인-남성적, 관계-여성적의 반응시간이 표 10에 나와 있다.

성별(2)과 조건(개인-여성적/관계-남성적 vs. 개인-남성적/관계-여성적)(2)을 변량 분석해 보았을 때, 조건에 따르는 주효과가 나타나(F(1, 128)=15.01, p <.01), 개인을 여성적인 특성과 관계를 남성적인 특성과 연합하여 반응하는 시간이 개인-남성적/관계-여성적 특성과 연합하여 반응하는 시간보다 빨랐다. 한편 성별 주효과는 없었고(F(1, 128)=.63, p >.05), 성별과 조건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하지 않았다(F(1, 128)=.31, p >.05).

본 검사에서도 관계적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RISC 고저집단을 비교해 보았고(표 11과 12 참조), RISC 고저 집단의 반응시간을 남녀별로 3원 변량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건의 주효과가 유의미했고(F(1, 64)=5.233, p<.05), 성별과 RISC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F(1, 64)=6.331, p<.05), 조건과 RISC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F(1, 64)=6.277, p<.05).

일반적으로 남성적 특성은 개인적이고 독립적이며 주도적인 특성으로, 여성적 특성은 관계적이고 배려적이며 공동체적인 특성으로 알려져 왔고, 이러한 내용들이 성 고정관념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본 검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매우 놀랍다. 특히 여성적, 남성적 특성 형용

표 10. 성별에 따른 반응시간 평균과 표준편차(ms)

성별	개인-여성적/ 관계-남성적	개인-남성적 /관계-여성적
남성(n=66)	904.35(134.39)	949.09(162.35)
여성(n=64)	914.22(134.12)	973.83(150.27)
평균	909.21(133.83)	961.27(156.41)

표 12. 성별 * RISC저고에 따른 IAT 점수 평균

성별	RISC	IAT 점수
남자(n=34)	저 (n=17)	98.64 (158.42)
	고 (n=17)	-37.15 (136.01)
여자(n=34)	저 (n=17)	77.89 (134.06)
	고 (n=17)	29.13 (175.13)

표 11. 성별과 관계적 자아성향에 따른 반응시간 평균과 표준편차 (ms)

성별	RISC	개인-여성적/관계-남성적	개인-남성적/관계-여성적
남자(n=34)	저 (n=17)	936.21 (157.08)	1034.84 (191.23)
	고 (n=17)	898.52 (121.94)	861.37 (147.56)
여자(n=34)	저 (n=17)	868.40 (100.44)	946.29 (155.63)
	고 (n=17)	944.73 (171.13)	973.86 (133.84)

사들은 임의적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스스로 평정한 것 중에 가장 점수가 높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 검사 결과는 '관계'와 '개인'의 성별차원과의 연합 표상을 잘 드러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관계를 남성적 특성과, 개인을 여성적 특성과 연합시킨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구성하고 있는 성 고정관념의 내용이 자체 모순적인 내용을 함의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니면, 집단주의 문화에 속하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관계가 오히려 남성적인 것이고, 개인이 여성적인 것과 연합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남녀 대학생들의 관계와 개인에 대한 표상을 알아보았다. 명시적인 검사인 RISC 검사에서는 남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여성들 뿐 아니라 남성들 역시 관계적 자아해석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관계적 자아해석 양식이 여성에게서 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던 Cross 등(1997)도 최근의 후속 연구들(2002; 2003)에서는 남녀차이보다는 관계적 자아해석 고-저 집단의 차이를 규명하고 있는데, 이는 관계적인 경향성이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Baumeister등(1997)이 영역차이 이론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의 영역은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 연구에서도 남성의 관계 지향성과 여성의 관계 지향성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개인' 및 '관계'와 관련된 연합망 표상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관계'와 활동성, 성별 영역의 연합

본 연구에서는 '개인' 및 '관계'와 관련된 연합망 표상을 평가영역과 파워영역, 활동성 영역, 성별 영역으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개인', '관계'의 연합망 표상이 분명하게 나타난 영역은 활동성 영역과 성별 영역이었다. 즉 남녀 대학생들은 활동성 영역에서 관계를 활동과 연합시키고, 개인을 비활동과 연합시키는 반응이 빨랐으며, 성별 영역에서는 관계를 남성적인 특성과, 개인을 여성적인 특성과 연합시키는 반응이 빨랐다. 활동성 영역의 연합 현상은 우리 문화가 집단주의 문화이고, 따라서 개인적인 상황보다는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상황에서 활동적이고 적극적임을 시사한다. Cross 등(1997)은 일반적으로 개인은 자기 이익에 민감하므로 집단 목표를 추구하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태만이 일어난다고 주장되어 왔지만,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이나 여성들은 오히려 집단 이익을 목표로 할 때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지지해주고 있다.

성별 영역에서의 연합 양상은 의외의 결과이기는 하나, 이를 활동성 영역의 결과와 함께 고려해 볼 때 이해될 수 있다. 활동성 영역에서, '관계'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것과 연합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특성은 성 고정관념에서는 남성적 특성에 가까운 내용들이다. 반면 활동성 영역에서 '개인'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들과 연합되었는데, 이런 특성들은 성 고정관념의 여성적 특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관계'는 오히려 여성적인 특성보다는 남성적인 특성들과 연합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이전 학자들의 주장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신분석학자들이나 많은 심리학자들, 여성학자들은 여성은 더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찾으려 노력해 왔다. 그렇다면 본 연구 결과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일까? 사실상 한국사회에서 '관계'라는 개념의 일차적 의미모델은 한국사회가 규정하는 가부장적 모델을 의미할 수 있고, 그 중심 원리는 남성적인 것들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살면서 개인들이 구성한 표상은 자신이 속한 의미 공동체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표상은 남성적인 특성과 더 연합이 잘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성 고정관념의 내용 중 여성은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이라는 내용과, 수줍고 얌전한 것이 여성적이라는 내용들은 적어도 한국인들에게는 자체 모순적임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여성은 관계적이다'라는 고정관념은 여성들이 양육을 담당해야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강요된 처방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고, '여성은 수줍고 얌전하다'는 식의 여성적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일반여성들이 보여 온 보편적인 특성을 기술하는 고정관념일 가능성이 있다. 즉 '남성적'인 특성에 더 연합되어 있는 '관계'를 여성의 역할로 처방내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관계적 남성과 여성, 비 관계적 남성과 여성의 차이

관계적 자아해석을 하는 남성과 여성, 비관계적 자아해석을 하는 남성과 여성(네 집단)이 네 개의 검사를 통해 보여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평가차원에서는 관계적 자아해석을 하는 여성을 빼고는 세 집단 모두 관계와 긍정 연합이 개인과 긍정 연합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관계적 자아해석 남성이 가장 관계와 긍정적 특성 연합이 강했다. 파워차원에서는 비관계적 자아해석을 하는 남성은 개인을 강하다와 연합시키고 있었고, 다른 세 집단은 관계를 강하다와 연합시켰지만 그중 비관계적 여성의 연합이 가장 강했다. 한편 활동성 차원에서는 모든 집단이 관계를 활동과, 개인을 비 활동과 연합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IAT 점수차이는 비관계적 남 < 관계적 남 ≒ 관계적 여 < 비관계적 여 순으로 관계를 활동과 연합시켰다. 성별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개인을 여성적과, 관계를 남성적과 연합시켰지만, IAT 점수차이를 보면, 관계적 남은 관계를 여성적 특성과 연합시키고 있었고, 관계적 여< 비관계적 여 < 비관계적 남 순서로 관계를 남성적 특성과 연합시켰다.

이와 같이 여성의 경우 비관계적 자아해석을 하는 여성들은 관계를 더 긍정적이고 강하고 활동적인 내용들과 연합시키고 있는 반면, 관계적 자아해석을 하는 여성들은 관계와 긍정과의 연합이 네 집단 중 가장 약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의 경우 관계를 중시하고 관계에 함몰될 때, 성 고정관념적인 관계역할을 벗어나기 어렵고, 따라서 관계에서 강하거나 활동적이기 어려우며, 이러한 경험들이 관계를 긍정적인 것과 강하게 연합시킬 수 없음을 시사한다. 또한 관계적인 자아해석을 하는 여성들은 관계에서 양가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계에서 긍정과 부정이 비슷하게 연합되며, 또한 강하다와 약하다가 비슷하게 연합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관

계적 자아해석을 하는 여성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예속적인 관계' 범주 에 속한 것일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즉 많은 심리학 이론들이 여성이 관계적이라고 강조하지만, 이는 여성들에게 처방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수행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처방에 따라 자신을 관계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자유롭지 못하고 갈등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비관계적 자아해석을 하는 여성들이 오히려 관계를 긍정적이고 강하고 활동적인 것과 연합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성들이 관계에서 자유로워질 때 오히려 관계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과는 달리, 관계적 자아해석을 하는지 비관계적 자아해석을 하는지에 따라 관계의 연합 정도가 확실히 달랐다. 즉 관계적 자아해석을 하는 남성은 관계를 긍정과 강하게 연합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파워차원과 활동성 차원과도 연합하고 있지만, 비관계적 자아해석을 하는 남성은 개인을 파워와 연합하고 있었고, 관계를 활동과 연합시키지만 연합의 정도는 가장 덜했다. 특이한 현상은 비관계적 남성은 관계를 남성적 특성과 연합시켰지만, 관계적 남성은 관계를 여성적 특성과 연합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들은 자신이 원하고 추구하는 방식대로 경험하고, 이는 표상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관계를 추구하는 남성들은 관계에서의 경험이 긍정적이고 강하며 활동적일 수 있고, 관계를 추구하지 않는 남성들은 이러한 연합이 약하던가 아니면 반대로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관계적 남성들은 다른 세 집단과는 달리 관계를 여성적인 특성과 연합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지만, 그중 한 이유로 이 연구 대상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관계적 남성들은 이성애적 관심이 더 높고, 따라서 '관계'에서 남녀관계를 떠올렸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관계'와 관련된 단어들이 이성애 관계를 연상하는 단어들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하기는 어렵다. 다른 한 이유는 관계적 남성들이 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고, 따라서 관계를 여성적인 특성과 연합시키는 경향성을 보였을 가능성이다. 즉 비관계적인 남성들과는 달리 자아해석을 관계적으로 하는 남성들은 관계에 더 의미를 부여하면서 여성들이 관계역할에 더 관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수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연구의 한계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통해 우리는 한국사회 속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되는 삶의 양식이 다르고 관계의 양식도 다르며, 개인의 자아해석 양식에 따라 관계와 관련된 표상도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는 본 연구의 대상이 한정되어 결과의 일반화에 제약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암묵적 표상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통해 반응시간을 측정하였고, 따라서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한 다양한 연령층을 참여시킬 수 없었다. 새로운 실험 패러다임의 개발로 성인들 뿐 아니라 아동들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극 형용사와 개념범주가 어려웠을 수 있다. 이전의 IAT 연구들은 연구자 임의대로 선정한 쉬운 단어들

을 자극 형용사로 쓰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 경우에는 단순한 호오차원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합망 표상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연구자가 임의대로 단어를 선정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IAT 검사에서는 사전 조사에서 대학생들이 평정한 단어들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단어들을 사용하였고,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는 과제가 어렵다고 지적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IAT검사는 5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1, 2 단계와 4단계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3단계와 5단계의 반응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개념이 어려워 반응시간에 변동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고, 각 개인의 반응 속도의 차이 문제는 IAT점수를 비교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변화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 남녀 대학생의 '관계'와 '개인'에 대한 표상을 밝혀줌으로서 후속 연구문제들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조혜자 (2002). 여성: 존재인가 과정인가. 서울: 철학과 현실사.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중앙대학교 출판부.

최상진 (2002). 한국인의 인간관계. 사회과학연구소 가을 심포지엄 자료집.

최샛별, 이명진, 김재은 (2003). 한국의 가족 관련 사회정체성 연구: 감정조절 이론의 수정적용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학 37(5), 1-30.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 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Bakan, D. (1966). *The duality of human existence: Isolation and communion in Western man.* Boston: Beacon.

Bandura, A. (1996). A sociocognitive view on shaping the future. In KPA(Ed.), *Mind, machine & environment*. Seoul: KPA.

Bargh, J. A., & Barndollar, K. (1997). Automaticity in action: The unconscious as repository of chronic goals and motives. In P. M. Gollwitzer & J. A. Bargh (Eds.), *The psychology of action.* NY: Guilford Press.

Bargh, J. A., Chaicen, S., Raymond, P., & Hymes, C. (1996). The automatic evaluation effect: Unconditional automatic attitude activation with a pronunciation task.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xychology, 32,* 104-128.

Baumeister, R. (1998). The self.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680-740). NY: McGraw Hill.

Baumeister, R., & Sommer, K. (1997). What do men want? Gender differences and two spheres of belongingness: Comment on Cross and Madson(1997). *Psychological Bulletin, 122*, 38-44.

Cross, S. E., Jonathan, S. G. & Morris, M. L. (2003). The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self-concept consistency,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933-944.

Cross, S. E., & Madson, L. (1997).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 5-37.

Cross, S. E., Bacon, P. L., & Morris, M. L. (2000). The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791-808.

Cross, S. E., Morris, M. L., & Jonathan, S. G. (2002). Thinking about oneself and others: The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social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399-418.

Devine, P. G. (1989). Stereotypes and prejudice: Their automatic and controlled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5-18.

Fazio, R., Sanbonmatsu, D., Powell, M., & Kardes, F. (1986). On the automatic activation of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229-238.

Gaertner, S. L., & NcLaughlin, J. P. (1983). Racial stereotypes: Associations and ascriptions of positive and negative characteristic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6,* 23-40.

Glick, P., & Fiske, S. (1999). Gender, power, dynamics, and social interaction. In M. Ferree, J. Lorber, & B. Gess(Eds.), *Revisioning Gender*(365-398). NY: Sage.

Greenwald, A., & Banaji, M.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s, self-esteem, and stereotypes. *Psychological Review, 102,* 4-27.

Greenwald, A., & Farnham, S. D. (2000).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to measure self-esteem and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6,* 1022-1038.

Greenwald, A., Banaji, M., Rudman, L., Farnham, S., Nosek, B., & Mellott, D. (2002). A unified theory of implicit attitudes, stereotypes, self-esteem, and self-concept. *Psychological Review, 109(1),* 3-25.

Higgins, E. T. (1996). Knowledge activation: Accessibility, applicability, and salience. In E. T. Higgins & A. W. Kruglanski(Eds.),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133-168), NY: Guilford Press.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England: McGraw-Hill.

Kaplan, A., & Sedney, M.(1989). (김태련, 조혜자, 이선자 역). 성의 심리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Katz, D. (1960). The functional approach to the study of attitudes. *Public Opinion Quarterly, 24,* 163-204.

Mackinnon, N. J. (1994). *Symbolic interactionism as affect control.* Albany: State University of NY Press.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Miller, J. G. (1984) Culture and the development of everyday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61-978.

Osgood, C. E., May, W., & Miron, M. S. (1975). *Cross-cultural universals of affective meaning.*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Osgood, C. E., Suci, G. J., & Tannenbaum, P. H.

(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Oyserman, D., Coon, H. M., & Kemmelmeier, M. (2002).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Evaluation of theoretical assumptions and meta-analyses. *Psychological Bulletin, 128*, 3-72.

Smith, E.(1998). Mental representation and memory.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391-445). NY: McGrawHill.

Triandis H. C., McCusker, C., & Hui, C. H. (1990). Multimethod prob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006-1020.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Press.

Wang, Q. (2001). Culture effects on adults' earliest childhood recollection and self-description: Implications for the relation between memory and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220-233.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05, Vol. 10, No. 2, 189-209

Implicit Representations of 'Individual' and 'Relation' in Korean College Students

Hee Jeong Bang Hyeja Cho Sook Ja Cho Hyun Jeong Kim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implicit representations of 'individual' and 'relation' in Korean college students. The study was based on measuring 130 students by RISC (Relational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4 sorts of IATs(Implicit Association Test). The results were summed up as follows: 'relation' was related to either 'active' or/and 'masculine' traits; Men with high RISC score rapidly associated 'relation' with 'positive' traits whereas women with high RISC score difficultly associated them; Men with low RISC score connected 'individual' with 'strong' and other groups connected 'relation' with 'strong'; All groups associated 'relation' with 'active' and women with low RISC most rapidly associated these; Men with high RISC connected 'relation' with 'feminine' but other groups connected it with 'masculine'. These results point toward a conclusion that Korean societies expect some forms of human relationship but differently from men and women.

key words : individualism, collectivism, relational self, IAT, implicit representation

1차 원고접수: 2005. 5. 15.
심사통과접수: 2005. 5. 28.
최종원고접수: 2005. 6. 15.